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⑤ 07. ⑤ 08. ① 09. ④ 10. ⑤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①

1. 석가모니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는 업에 의해 생사의 세계를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맹자가 의(義)의 실천을 강조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③ 공자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노자는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을 제시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⑤ 묵자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하이에크와 케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비판하였으므로 정부에 의한 투자의 사회화가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케인스는 시장 실패 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하이에크는 자유로운 경쟁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⑤ 케인스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긍정하였지만 정부가 시장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3. 에피쿠로스와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밀이다. 밀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모든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신은 다른 존재에 고통을 주지 않으며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② 에피쿠로스는 정의를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으로 규정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밀은 자기희생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하지 못하거나 증가시키는 경향이 없다면 선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정신적 쾌락의 증진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의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4.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욕구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며 욕구가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정약용에 따르면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이고,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
- ③ 정약용은 선행과 악행은 자주지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가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보았다. 정약용에 따르면 형구를 지닌 존재 중에 인간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욕구를 지닌다.
- ⑤ 정약용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인의예지의 사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5. 스피노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자신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지닌 존재의 자기 보존은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선악을 인식한 개체가 수동적 정서에 예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④ 스피노자는 인과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더라도 자연의 내재적 원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개체는 실체인 신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6.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이다. 이이에 따르면 천명의 성은 이(理)로서 불변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수양에 있어서 교기질을 강조하였다(ㄷ). 이황과 이이는 주희의 심통성정(心統性情)을 받아들여 마음이 사덕과 사단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이황은 사단인 측은지심과 칠정인 사랑[愛]은 그 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ㄴ. 이이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7. 벌린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벌린의 주장이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타인의 간섭이 없는 불간섭으로 보았으며 벌린에 따르면 선한 의도에서 비롯한 간섭으로 소극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ㄷ). 벌린은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았다.

ㄴ. 벌린은 복지를 증진하는 법에 의해 적극적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흄과 벤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흄이고, 을은 벤담이다. 흄에 따르면 공감은 타인의 정념을 관찰하여 활성화된 마음에서 일어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흄은 도덕적 선악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았으며 행복을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④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의 적용 범위가 인간에게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벤담은 승인과 부인의 감정 그 자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9. 루소와 로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루소이고, 을은 로크이다. 로크는 개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회 계약 체결에 따른 국가 수립 이전부터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게 되므로 개인은 사회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갖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루소는 주권은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루소는 일반 의지를 따르는 것은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를 따름으로써 시민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③ 로크에 따르면 신탁을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권력인 입법부를 교체할 권리를 시민이 지니고 있다.

⑤ 루소와 로크는 모두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10. 동학과 위정척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동학사상, (나)는 위정척사 사상이다. 동학사상과 위정척사 사상은 모두 도를 지켜 주체적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동학사상은 시천주를 제시하였지만 민간 신앙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② 동학사상은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신분 질서에 따른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비판하였다.
- ③ 위정척사 사상은 바른 가르침을 유교라 생각하였으며 유불도의 융합을 주장하지 않았다.
- ④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의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술에 대해서도 배척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맹자를 계승하여 선한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ㄴ).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완전한 앎을 추구하기 위해서 격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마음의 이치를 구현하여 왕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양지의 보존을 긍정하며 선한 본성을 잘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진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하였다(ㄷ).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간이 가진 자연적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노자는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 ㄴ.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언어로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3. 둑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둑이이다. 둑이는 제시문의 강연을 통해 행위의 도덕적 평가가 성품에 따른 행위의 실제 결과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 ① 듀이는 최선의 행위를 위한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산출할 쾌락의 예측에만 머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듀이에 따르면 쾌락의 예측 결과는 행위에 대한 도덕 평가의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없다.
 - ② 듀이는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 행위와 성품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③ 듀이는 성품과 관계없이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늘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④ 듀이는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에서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4. 칸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만 객관적 도덕 법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도덕 법칙이 자기 자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의지가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 ④ 칸트는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가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 ⑤ 칸트는 신의 경우는 의지와 도덕 법칙이 일치하기 때문에 경향성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15. 묵자와 갈통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묵자, 을은 갈통이다. 묵자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누며[兼愛交利] 해로움은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ㄱ). 묵자는 존비친소(尊卑親疏)를 구별해서 실천하는 차별적 사랑을 비판하며 차별 없는 사랑인 겸애(兼愛)를 주장하였다(ㄴ). 갈통은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았다. 갈통에 따르면 이러한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ㄹ. 묵자와 갈통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6. 선종과 교종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선종, (나)는 교종이다. 선종은 점진적 수행 없이도 단박에 불성을 깨치는 돈오(頓悟)를 중시하였다(ㄱ). 교종은 불교 사상의 체계적인 정리와 해석을 중

요하게 여겼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ㄹ. 선종과 교종은 모두 현상이 공하다고 보았으며 그 이면의 법칙성이 실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17.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의 섭리인 영원법은 자연법의 원천이고,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은 영원법을 원천으로 해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 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② 아퀴나스는 비이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이 항상 옳다고 보지 않았다.

③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 즉 자연적 덕을 내세의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보고,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마르크스의 입장이고,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공공 정책으로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소외가 지속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한다.

②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다고 보았다.

③ 민주 사회주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으므로 체제 전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마르크스와 민주 사회주의는 모두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을 위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9.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인 절제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의 덕을 갖추는 데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아리스 토텔레스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0. 맹자와 순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의 입장에 비해 순자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사단(四端)의 확충(擴充)을 중시하는 정도(X)’는 낮고, ‘교육을 통한 본성 변화[化性]를 중시하는 정도(Y)’는 높고, ‘하늘과 인간의 구분[天人之分]을 중시하는 정도(Z)’는 높다. 따라서 맹자의 입장에 비해 순자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①이다.

정답 ①